

# 이념의 혁명, 혁명의 진실

〈서양 근대혁명사 3부작〉 펴낸 김민제 교수

“일상생활에 지쳐 있고 미래에 개혁마저 불가능한 참담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혁명을 그려왔다. 그러나 혁명의 꿈을 성취하는 순간이, 인류의 경험으로는, ‘꿈’이 깃뻛히기 시작하는 순간이었고, 혁명이 성공하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참한 ‘현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홍익대 김민제 교수(48)가 펴낸 《영국혁명의 꿈과 현실》·《프랑스혁명의 이상과 현실》·《러시아혁명의 환상과 현실》등 〈서양 근대혁명사 삼부작〉의 머리말에 실린 글이다. 12년의 절차타마를 거쳐 완성한 이 책에는 혁명의 승고한 ‘대의’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과 그것을 배반한 혁명의 ‘현실’에 충실한 양대 해석들이 제시돼 있다.

## 위대한 유산, 불행한 현실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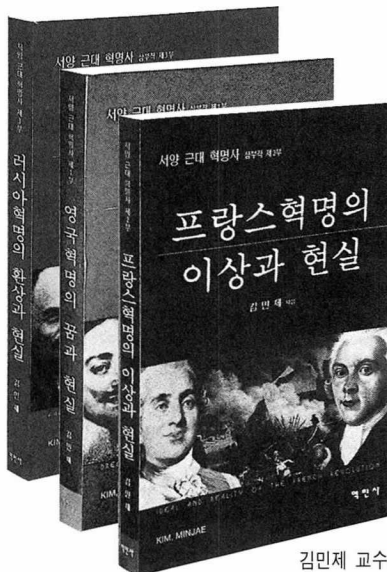
“혁명은 역사의 중요한 토픽입니다. 1987년 미국에서 돌아와 영국과 프랑스혁명에 관한 수정주의적 해석을 소개했습니다. 의외로 학생들이 이 새로운 시각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비주류였던 이러한 역사해석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책이 없어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이 책에는 영국·프랑스·러시아혁명에 대한 긍정적 해석과 부정적 해석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긍정적 해석의 입장에 따르면 세 혁명은 부패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유용하고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후세에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다. 부정적 해석에서 혁명은 일으킬 가치가 없었으며, 혁명의 목표가 아무리 이상적일지라도 혁명은 ‘현실적’으로 인류에게 불행만을 초래하였다고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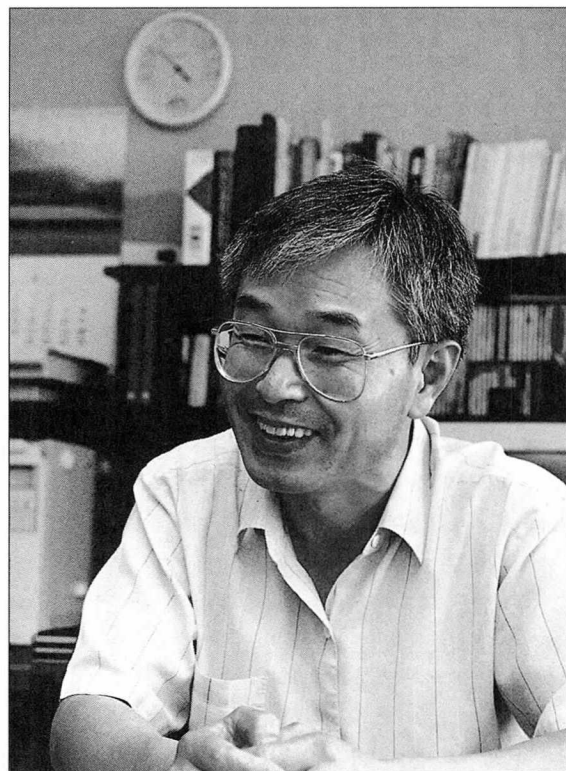
“이러한 두가지 상이한 혁명상은 역사연구의 대상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느냐, 단기적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차이에서 나옵니다. 장기적 관점에 선 역사가들은 역사에는 구조적인 패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역사의 발전방향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단기적 관점에 선 역사가들은 장기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어긋나는 사료를 취사선택합니다.”

김교수는 혁명의 꿈과 현실 중에서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독자들이 두가지 해석을 균형 있게

**“혁명은 역사의 중요한 토픽입니다. 역사해석에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며 한 역사해석에 사로잡혀 특정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가 되어선 안됩니다. 여러 견해를 비교 종합해 비판하는 능력을 가질 때 비로소 역사가·지식인·정치가들의 꼭두각시 놀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김민제 교수



이해함으로써 ‘지적인 혼란’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역사의 해석에는 여러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역사가들이 제시하는 역사해석에 사로잡혀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 견해들을 비교·종합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비로소 역사가·지식인·정치가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 놀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김교수가 수정주의적 해석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7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한 영국사학회에서 러셀 교수가 영국혁명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것은 기존의 상식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 후 그의 논문과 책을 읽고 지도교수였던 램버그 교수의 지도로 영국혁명의 새로운 해석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전공은 영국 의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프랑스 혁명사에 관한 강의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당시 미네소타 대학에서 프랑스사를 강의하던 뱀포드의 교수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혁명사에 관한 지식은 친분이 있던 미네소타 대학 스타브로 교수의 지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영국·프랑스·러시아 혁명에 대한 방대한 논문과 책을 섭렵했다. 이를 토대로 일급 학자들의 주장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혁명사 해석에 대한 세밀화를 그려낼 수 있었다. 마치 인상과 화가들이 점을 찍어서 사물의 형태를 보여주듯 텍스트를 인용하고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 과거의 콜라주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역사의 심미적 차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지식인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대중의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과 영합해서는 안되지만 대중의 지적인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절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문학의 위기는 이러한 지식인의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인권’의 가치 강조

김교수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이념’보다는 ‘인권’이다. 아무리 이념과 이상이 고귀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다면 위험한 논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페티의 계산에 따르면 영국 내전에서 약 3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칼튼은 영국 내전에서 사망률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망률을 능가했다고 전한다.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았는지 입증하는 자료다.

“‘인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념에 휩쓸리다 보면 인권이 깃뻛힌다는 것이 혁명의 역사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특히 정치가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념의 이름을 빌린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김교수가 꿈꾸는 사회는 ‘이상’과 ‘현실’이 적절하게 갈등·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사회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상호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봉쇄되면 하나의

논리만이 황포를 부리게 된다. 러시아 혁명의 해석이 보여주듯이 주류가 혁명의 이론까지도 장악하는 역설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권의 노작을 한꺼번에 완성하기 위해 많은 희생도 감수해야 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키느라 가정에 충실하지도 못했다.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 〈의회와 ‘영국내전’〉·〈영국 헨리 8세 초기의회〉 등 전공논문 이외의 책은 한권도 펴내지 못했다. 악전고투의 시간을 충실하게 지원해준 것은 사람이 아닌 컴퓨터였다. 방대한 사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컴퓨터의 조력은 결정적이었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작업에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The Korean Historical Connection’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해 학과에 기증했다. 한국사·동양사·서양사의 논문과 서지목록을 제공하는 KHC에는 현재 약 6만권에 이르는 자료들이 저장돼 있다.

프랑스·러시아 혁명에 관한 저술은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그것은 그 분야의 전문학자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학들이 이 작업을 뛰어넘는 연구성과를 내기 바란다.

“앞으로 학문적 업적으로 평가받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류로부터 소외된 소수의 의견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 박천홍 기자

역민사/A5신/각 360~400면/12,000~15,000원